

배포 일시	2022. 6. 2.(목)		
담당 부서	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	책임자	과 장 김동준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생 (044-201-4357)
보도일시	2022년 6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-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이해도 높이고 교육장소로 활용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*(KASS)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(6월 23일, 잠정)를 앞두고 청주공항(2층)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: GPS의 수평 오차(최대 33m)를 1m 이내로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

○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)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, 홍보동영상을 전시하여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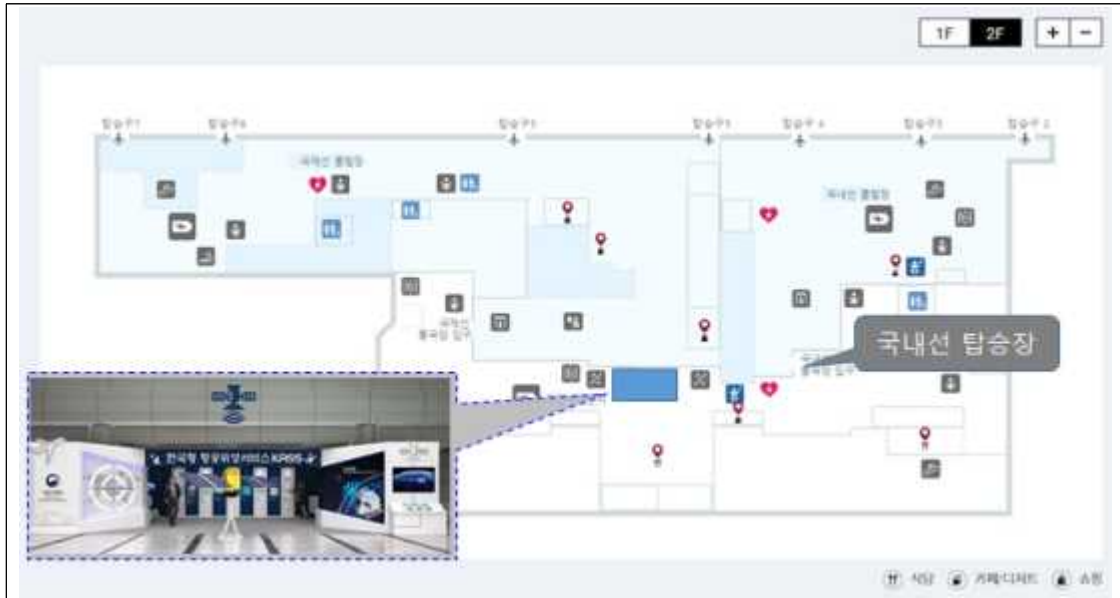
-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,
 -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)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,
- “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(프랑스령 기아니)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 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“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)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참고 1

KASS 홍보관 위치 정보

□ 특별 홍보관 정보

- 개 관 : '22년 6월 3일부터(항공기 운항시간 대)
- 관람료 : 무료(주차장 : 유료)
- 위 치 : 청주국제공항 내, 2층 탑승장



□ 상시 홍보관 정보

- 개 관 : '22년 6월 3일부터(09:00~18:00, 월, 화, 수, 목, 금)
- 관람료 : 무료(주차장 : 유료), 043-901-6400(사전 문의)
- 위 치 : 항공위성항법센터 1층 현관(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-8)



참고 2 항공위성서비스(KASS) 홍보관 구성 내용

1 청주 항공위성항법센터 상시 홍보관

- (구성) ①KASS 위성모형 전시를 통한 간결한 인트로 패널, ②KASS 사업 및 위성센터 연혁, 동작원리 등 설명패널, ③홍보 동영상 방송

【 항공위성항법센터 홍보관 배치 조감도 】



-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정면 Wall | 우측 Wall | 홍보동영상 |
| ① 항공위성서비스 그래픽월 | ② KASS 서비스 등 설명패널 | ③ 홍보동영상(RT 2'30") |

2 청주공항 특별 홍보관

- (구성) 입구부 ①홍보영상, ②인트로 사인, ③위성모형, ④내부 설명모형, ⑤이해가 쉬운 설명패널, ⑥홍보 동영상 방송, ⑦출구부 위성전파 상징 패널

【 청주공항 홍보관 배치 조감도 】



- | | | | |
|--|---|---|--|
| 홍보동영상 | 입출구 상징 | 모형 | 설명패널 |
| ① 입구영상 (RT 15")
⑥ 홍보동영상 (RT 2'30")
※ 영상Zone 구성 | ② 인트로 사인 (순차점등)
인류의 미래를 바꾼 항법기술,
KASS
⑦ 위성전파 상징 라이팅 패널 | ③ 위성모형
④ 설명모형
KASS 항공용서비스
(항공기, 활주로) | ⑤ 설명패널
항법의 역사, 세계의 위성항법,
SBAS원리, KASS 개요,
KASS성능(항공용 및 타분야),
KASS의 경제성과 미래 |